

사회경제공동체 지리산서 실현

남원시, 운봉·인월·아영·산내면의 음식·문화 관광자원 연계 개발

남원시가 운봉·인월·아영·산내면 등 지리산권 4개 면의 음식·문화·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해 주민들의 소득기반 마련과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통해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유희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와 농촌형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70억원(국비 49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현 정부가 지역에 사람을 키우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남원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난 2018년 개소한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해 오고 있다.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는 그동안 마을학교와 마을사업 기획단 운영을 통해 지역에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는 작업들을 해 왔다.

이러한 인적 자원과 지리산 실상사 귀농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귀농·귀촌인들이 아우러져 사업의 핵심 주체가 되었다.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는 특히,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해소, 지

리산권 6차 산업 발전의 마중물로 만들기 위해 지난 8개월 동안 밤낮 없는 학습과 토론을 거듭하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사내면 마을카페에서 김동규 부시장, 지리산권 4개 면의 면장, 이정린 도의원, 김종관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평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민족의 애환을 함께 하고 있는 지리산의 특수성과 인적자원의 우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남원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기본계획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구체화와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인구늘리기 총력전...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임실군이 인구늘리기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군은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한 데 이어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 인구정책의 중요성 및 인구늘리기에 모두가 동참할 것을 적극 일러는 데 발 벗고 나섰다.

27일 군은 신평 6단약장 군간부 및 장병 50여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인구교육의 첫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군에서 추진 중인 인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와 함께 '출산과 결혼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관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군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귀농·귀촌지원정책에 대한 자세한 이

해와 질문을 통해 전역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군장병에게 임실을 알리고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군은 앞으로 범 군민 인구늘리기 분위기 확산과 인식개선 홍보, 출산·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유도를 통해 관내 군부대는 물론 기관 및 기업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군은 올해 초 종합적인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정책팀을 새롭게 신설했다. 인구정책팀은 인구정책과 출산 및 보육 효실행정,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총 4개 분야 45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35사단 인구정책 교육을 시작으로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기관별 인구정책 교육 실시, 임실소식지 출생아 축하들 게재 등 다양한 시책 추진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찾아가는 인구교육은 인식의 전환에 전념해 도우미 되고, 인구늘리기에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작은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순창·임실대대 현장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순창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가 이례적으로 순창·임실대대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27일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의원 등 30여명이 순창·임실대대를 방문해 현장에서 회의를 개

최하고 군 장병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분기별로 한번 개최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순창이 아닌 임실대대에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며, 이는 군부대 현장에서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 협의

차 추진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황숙주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순창군청에서만 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직접 대대 현장에 나와 장병들도 만나고 시설물 견학도 하니 매우 의미 있었다"면서 "오늘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순창을 지키기 위해 각 분야에서 더욱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일 대대장은 "순창군에서 예비군 육성을 위해 매년 8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장에서 보고드린 적이 없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원들에게 그 육성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직접 보여주고 부대도 소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가 순창·임실대대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쑥쑥농부들'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프리마켓을 열었다.

소비자와 소통·판매... '정' 넘치네

남원농업기술센터 '쑥쑥농부들', 프리마켓 열어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에서 육성한 강소농(작지만 강한 농업인) 출신들의 자율적 모임 중 하나인 '쑥쑥농부들'이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프리마켓을 열었다.

쑥쑥농부들(대표 박희숙) 프리마켓은 3년째 꾸준히 열리고 있으며 30여 농가가 직접 생산한 신선 농산물, 농산가공품, 수공업품 등을 들고 나와 소비자와 현장에서 소통하며 판매하는 정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리마켓은 3월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관한투 앞 요천변 벚꽃 길에서 펼쳐진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번주는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29일부터 금, 토, 일 3일간 펼쳐진다.

이번 아니라 부대 행사로 우리 농산물로 요리 시식회와 버스킹, 캘리그래피, 시낭송회 등을 열어 고객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잡곡, 블루베리, 산채나물 등 1차 농산물과 식품제조 허가를 받은 농가의 과실즙, 수제청, 한과, 약과, 도토리묵, 김부각, 장류 등의 가공제품, 농가가 직접 제작한 핸드메이드 제품들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의 반응이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다.



순창군이 강천산 군립공원을 위해 시설물 등 일제 정비에 나섰다

순창군, 강천산 군립공원 봄맞이 새단장

순창군이 봄맞이 강천산 군립공원 새단장을 위해 등산로와 산책로, 시설물 등 일제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 휴양지로 사랑받고 있는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내 6개 등산로와 맨발로 걷는 웰빙 산책로,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봄철에는 곧 만개할 철쭉과 개나리 군

락지가 아름답게 조성될 예정이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사계절 볼거리가 가득한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여 휴양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위험도로개선

유지관리사업 추진

순창군이 올해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개선에 나선다.

군은 올해 사업비 168억원을 들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도로유지 관리사업 등을 통해 총 10.2km에 이르는 도로를 개선한다. 위험도로 선형 개선공사 10곳,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 지산~안장선(봉안~안정) 도로 확포장공사 3차분 발주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에 순창군도 이번 위험도로 개선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담보하는 한편 교통망 개선으로 유무형의 시너지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김수근 건설과장은 "관내 각종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계획대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위험도로 개선 및 도로유지 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보건의료원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간담회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26일 장애인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연합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간담회는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정보공유와 상호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김형진 원장은 "재활사업 관련 지역 내 자원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활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의 전용 특화차량을 운행하여 중증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 지원 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